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상황구조에 관한 연구

김태영*

박재수**

目次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 III. 실증분석
- IV. 결론

I. 서론

한국인의 일본으로의 이주는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인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촌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강제징용 및 일본경제에서의 값싼 대체노동력으로서의 위치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였다(유시중, 1974; 佐藤誠, 1998). 불행하게도 일본전후에는 전장에 나간 일본인들이 돌아옴으로써 대체노동력으로서 재일한국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약화되었다(박관숙, 1965). 특히 일본 내 재일한국인은 광복 후의 남북분단 및 한반도 정치상황의 악화로 인해 일본에의 정착이 불가피하였다. 그 결과, 일본 속에서 재일한국인은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존재해 왔으며, 일본사회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거듭함에 따라 사회정체성(국적

* 강릉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부교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원

및 민족 등)이 모호해지기 시작하였다.

전형적인 사건은 1970년대에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서,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자 하였던 재일한국인이 ‘히타지(日立) 제작소’ 채용취소에 관해 항변하였던 ‘히타치재판’일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해왔던 재일한국인 후손들에게 일본사회는 차별과 편견의 벽을 적용하고 있었던 바, 일본사회 속에서의 재일한국인의 사회정체성에 대한 위치를 찾고자 하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재일한국인에 관한 이슈가 국적 및 민족 차원에서 일본사회와 재일한국인 사회 간의 차원으로 움직이면서 일본 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하는 문제의식이 태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재일한국인의 경우는 여타 외국인들과 달리, 기본적인 외모, 일본어 능력, 문화 등에 있어 일본인과 의 차이점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제반활동에 있어서 일본 지향적으로 변화해왔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Miyajima, 2004). 때문에 재일한국인은 일본적이면서 한민족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사회적 정체성, 즉 혼성적(hybridity)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었다(C hapman,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일본사회에서 독립적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가들의 경우도 혼성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재일한국인의 비즈니스 활동은 일본 지향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일본화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민자들의 비즈니스는 현지국의 사회경제적 또는 정부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확장의 기회가 제약되는데, 일본 사회와 정부가 재일한국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일본 자국민과 같은 수준에서 동일하게 바라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일한국인의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또 하나의 혼성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한국과의 관계성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은 비즈니스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관계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母國과의 연결성을 버릴 경우에 다가오는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관계 유지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일한국인의 비즈니스 활동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긍부정적인 혼성적 특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사회에서 재일한국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본의 상황구조를 호전시키는 요인을 고찰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일본에서 재일한국인 사회의 상황

1962년 한국인끼리의 혼인이 전체혼인수의 70.2%, 한국남자가 일본여자를 아내로 맞는 경우가 17.8%, 한국여자가 일본남자와 혼인한 경우는 11.3%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1972년에는 한국인끼리의 혼인이 46.9%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남자와 일본여자의 혼인은 22.9%로, 한국여자와 일본남자의 혼인은 24.0%로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인이 46.9%로 늘어나 한국인끼리의 혼인과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율이 같아졌다. 1981년에 이르러 한국인끼리의 혼인은 40.7%이고, 한국남자와 일본여자의 혼인은 22.6%, 한국여자와 일본남자의 혼인은 35.7%로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율은 58.3%가 되며, 오히려 한국인끼리의 혼인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1971년부터 한국인끼리의 혼인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인과의 혼인은 계속 증가하여 1976년에는 한국인끼리의 혼인수를 앞지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이유한, 2001). 그 결과, 최근의 3,4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일한국인 사회는 해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3, 4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일한국인사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결혼 사업, 취업을 위해 귀화하는 재일한국인수가 1988년 이후 꾸준히 증가, 1995년 한해에만 1만 3천여명에 달했으며, 1996년 현재 약 20만 4천여명에 이른다(김태영, 2002). 이것은 재일한국인으로서는 사회적인 취업기회확대 및 제약적인 사회경제적(비즈니스) 활동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향후에 재일한국인기업가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을 것 인가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재일한국인들에게 民族教育이란 그 의미가 퇴색되어 왔던 사실에서 본다면(정삼영, 1983; 朝日新聞, 1994), 그 우려가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일본으로의 귀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재일한국인은 적은 편이어서 그 심각성이 존재한다. 재일한국인들에게 귀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던 정찬원(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회답자 428명 중, 잘했다는 의견이 23.6%(101명), 좋지 않다는 의견이 14.7%(63명), 그리고 중립적 견해가 61.7%(264명)로써 귀화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

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한국인 사회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재일한국인이라는 정체성 혼란(이광규, 1990)이 존재한다고는 연구결과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일본사회 및 정부의 정책 및 생존을 위한 재일한국인들의 처지가 결합되면서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의 귀화정책을 지향하는 한편, 참정권 등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재일한국인의 일본 내의 사회경제적 기회 즉 직업선택의 기회에 관해서는 공무원 등 국가시험, 일반기업체, 그리고 변리사, 선박 및 항공기 소유 등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사회는 과거부터 재일한국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 않았으며, 재일한국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재일한국인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정보다는 문제발생의 근원으로서 생각해왔다(김응렬, 1990; 민관식, 1997).

둘째, 재일한국인의 기업체 수는 1997년 현재 총 9,494 개사에 달하는데(在日韓國商工會議所, 1997), 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발생해왔다. 직업 중 자영업이 많은 이유는 일본기업이 고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에 진출하였으며, 일본 사람들이 3D업종으로 간주하는 파칭코, 불고기집 등 식당, 고철수집 및 판매업, 토목 건축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책적 차별이 심하지 않는 분야인 가수, 배우, 운동선수, 소설가, 영화감독 등 자유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김태영, 2002). 따라서 식민지정책이나 강제이주로 인해서, 일본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재일한국인들은 막노동이나 운전수 등의 저변적 경제활동에서 생존해 온 현실을 감안한다면(이성근, 1990), 현재에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역설하기도 하다.

비록 최근의 韓流경향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한국 및 재일한국인 사회를 다시 보는 경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발생되어서 사회적 위치를 바꿀만한 논리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사회의 감성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상황구조 이론과 재일한국인의 상황구조

재일한국인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할 때, 일본 내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일한국인들의 통제역량은 미약하다. 더

구나 재일한국인 및 재일한국인의 비즈니스 정체성 또한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의 한류 경향에 의해서 일본사회가 재일한국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어왔다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일한국인들의 비즈니스 상황을 호전시킬 방향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상황구조(situation structure)이론을 도입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과 구조에 대한 정의를 보면, 상황은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고유한 실제적 특성(때문에 상호 간의 통제의 거리가 중요)”, 구조는 “권리에 관한 정책적 선택 입안(또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집합)”으로도 정의된다(Schmid, 1987). 즉 상호의존성에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것이 상황구조 이론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상황구조는 대칭적 외부성과 비대칭적 외부성 (symmetric externality, asymmetric externality)의 조건을 말한다. 어떠한 상황구조를 지니느냐에 따라 협상은 상호성(reciprocity), 강제(coercion), 그리고 ‘주고 받음’으로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교환(exchange)의 원칙 하에서 관심사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Mitchell and Keilbach, 2001). 일례로 포경(捕鯨)국가 간의 문제는 대칭적 외부성이라는 상황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포경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세세한 연결이 없어도 상호성(상호호혜)원칙에서 부상하는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한편 포경국가와 비포경국가 간에는 고래잡이가 비대칭적 외부성이라는 상황구조를 형성하며, 이해관계 때문에 강제에 의한 협상 원칙이 작용하며, 국가 간에는 부정적인 연결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때에는 어느 한쪽이 제반문제에서 강하게 희생(손해)하여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구조가 만들어진다.

한편 오존 감소(Ozone depletion)를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상 사례에서, 선진국은 프레온 가스(CFCs) 사용 금지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제’하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비용을 사용하면서 선진국들의 강한 희생을 원치 않는 ‘상호성’에 입각해 있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그 상호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CFCs의 거래에 관한 이슈를 공론화 하였지만, CFCs에 대한 대안적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개발도상국 또한 참여하지 않았던 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 ‘긍정적 연결성’이 기대되는 오존협정(오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용량의 문제라는 측면)이라는 규범기반의 협정을 통해 협상하려고 하

였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에 ‘긍정적 연결성’은 다음에 의해 나타났다. 첫 번째, CFCs의 거래를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먼저 금지하였던 바,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 모든 OECD 국가에 참여하였다. 둘째, 상술한 규범은 점차적으로 오염배출국가에 대한 규범에서 빈곤국가의 찬성이 필요한 규범으로 혼합되었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자에게 가치있는 규범으로 발전하였다. 궁극적으로 ‘교환’이 발생한 것이다 <표 1참조>.

<표 1> 상황구조 사례

| 사 례 | 상황구조 | 협상기반 |
|---------------------|------------------------|-----------------------------|
| 포경국가 간의 고래잡이 | 대칭적 외부성 | 이슈를 특화하는 상호성 (연결성 필요 없음) |
| 포경국가와 비포경국가 간의 고래잡이 | 비대칭적 외부성, 강한 희생이 존재 | 강제 (부정적 연결) |
| 선진국 간의 오존감소 | 비대칭적 외부성 | 이슈를 특화한 상호성 (연결성 필요 없음) |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오존감소 | 비대칭적 외부성, 강한 희생이 존재 | 교환 (긍정적 연결)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일본에서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경우는 ‘포경국가와 비포경국 간의 고래잡이’ 사례처럼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손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 외부성의 상황구조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인 재일한국인 집단의 문제와 더불어 재일한국인 기업가는 한일 양국의 공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래서 제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재일한국인기업가 간의 삼각구도’에서 긍정적 연결성이 있을 것이고, 그 구도에서 한국정부든 일본정부든 문제 해결적 교환(또는 논쟁을 통한 해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온 것이 아닌가 판단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실상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재일한국인 기업가를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가로서 보기보다는 막연하게 우리와 같은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지닌 문화적 일체감이 존재하는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며, 일본에서는 자국 경제와 산업에 도움을 주는 기업가로서 판단하기 보다는 이방인으로서의 한계적 비즈니스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에서 혁신적 기업가로서의 위치가 모호한 상태에 참여하는 기업가로이다. 따라서 ‘한국, 일

본, 그리고 재일한국인 기업가 간의 관계'가 재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오존감소' 사례에서처럼 상호간의 긍정적 연결을 통한 문제해결적 '교환성'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일한국인 기업가에 대한 상황구조는 '일본시장에의 진입에 있어서 일본적 환경,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시각,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사건이 당해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종합적 구조로 정의한다.

3)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비즈니스 상황구조

에스닉 기업가정신의 연구구조는 매크로(Macro)-미크로(Micro) 측면을 일부 제한하여서 활용하기도 한다(Sequeira and Rasheed, 2004; 김태영, 2005). 이주국의 정책적 측면과 에스닉사회 및 비즈니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에서 맥락은 조금씩 다르나 문제점이나 방향성 제시에서 그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호주에 관해서는 Collins(2003), 캐나다는 Froschauer(2001), 네덜란드는 Kloosterman(2003)의 연구가 해당된다. 이것은 기업가의 심리와 행동특성,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에 따른 경제발전정도와 사회문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의 복잡성을 풀어보고자 할 때 적용되어 왔다(Mueller and Thomas, 1999; Dodd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본사회 및 일본정부, 그리고 한국과의 관련이 재일한국인 비즈니스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요인을 찾아서 분석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재일한국인사회 그 자체와 재일한국인기업가에게 연결된 한국의 비즈니스관련자들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가정된다. 그것은 일본사회에 대한 재일한국인사회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미약하기 때문에 일본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고려될만한 사항이다. 재일한국인사회는 일본사회 및 정부에게서 역사적으로 충분한 실망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일한국인 기업가에게 영향을 주는 상황구조를 호전시키는 요인은 재일한국인 사회의 일본에의 공헌도와 한국과의 비즈니스 지원관련 네트워크의 관계성에서 풀릴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재일한국인사회의 공헌도가 높아야 한다든지, 또는 한국관련 네트워크가 친밀해야만 일본의 상황구조를 호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연구과정에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재일한국인사회가 일본사회에의 공헌을 높여도, 재일한국인기

업가의 일본내 비즈니스 상황의 호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한국인이 외모, 언어, 그리고 일본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의 이질감이 없으나(한영혜, 2006), 정책적으로 볼 때에는 귀화대상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일본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차원을 고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일한국인 관련비즈니스 상황을 굳이 호전시키지 않아도 큰 압박을 받을 일이 없으며, 한국국적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것보다 일본국적으로서 비즈니스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만약 일본정부가 재일한국인의 귀화정책을 의도적으로 고려한다면, 나름대로의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다.

궁극적으로 재일한국인기업가에게는 직접적인 비즈니스활동에서 일본사회 및 정부에게 보편적인 비즈니스 기준을 제시해 줄 때, 일본에서의 활동이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재일한국인들의 비즈니스가 대부분 전통산업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서비스 시장(primary activities)에서의 직접적 연결정보다는 지원체제에서의 연결성(supporting activities)에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상황구조의 호전 요인

(1) 재일한국인 사회의 일본사회에의 공헌

에스닉 집단이 당해사회에 공헌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주어지는 당해사회에서의 제반적인 사회경제활동에서 우월한 지위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며(Singer, 1997), 성공적인 기업가정신에 있어서 에스닉 그룹 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Altinay and Altinay, 2006). 때문에 이주국에서 이민자 그룹은 성공적인 기업가정신의 표본으로서 거론되는 동시에 현지사회에의 공헌자로 인식된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에스닉집 집단이 지역공동체의 하부그룹으로서 인식되며,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Bates, 1994), 사회문화적·역사적·종교적으로 동질성 유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시장의 기회에 반응하면서 이주국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에스닉시장경제권을 만드는(Ibrahim and Galt, 2003) 긍정적인 측면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하지만, 에스닉 집단이 에스닉 경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당해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만든다. 때문에 이주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에스닉

집단의 규모를 나름대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왔다(Verheul et al., 2001). 집단규모가 커지면,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닉 집단의 규모가 커다면, 현지사회는 이민그룹에 대해서 실업문제의 증가(일자리 빼앗음), 문화적 갈등형성, 제한된 사회 인프라의 부족문제, 패거리문화 형성 등의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낼 수도 있다(Singer, 1997). 비록 재일한국인사회가 일본사회에 긍정적 공헌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상술한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으로 언제나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사회의 긍정적 공헌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재일한국인기업가의 입장에서, 본 연구자들이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재일한국인사회가 일본사회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비즈니스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김태영, 2005).

결과적으로 재일한국인사회의 일본사회에의 공헌이 일본의 재일한국인 비즈니스관련 상황구조를 호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사회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일본의 상황구조를 호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일한국인 집단의 규모 때문에 재일한국인들의 뛰어난 사회경제적 활동은 오히려 비호의적일 수도 있다.

HI: 재일한국인사회의 일본사회에의 공헌은 일본의 재일한국인 비즈니스관련 상황구조에 (-)의 영향을 미친다.

(2) 한국의 비즈니스관련자들과의 네트워크

본 연구자들은 재일한국인 기업가들에게 재일한국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도우며 되는가 물어보았다. 그들은 집단화 그 자체가 일본정부 및 일본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전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김태영, 2005). 그 원인은 앞서 논의한 재일한국인 집단의 일본사회에의 공헌도의 패러독스(paradox)와 유사한 상황, 즉 명확하지는 않지만, 70년대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항의운동을 시작하면서 일본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하고자 하였던 사건에서 이미 재일한국인들 간의 연결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보편적으로 보자면, 재일한국인들에게는 일본에서 미래에도 살아

가야 하며, 발전적인 일본에서의 미래 삶이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우갑경, 1998). 이것은 김태영(2005)의 실증연구에서도 지지되는데, 강한결합을 의미하는 비즈니스관련 에스닉 네트워크가 일본사회와의 상호성에 부분적으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바, 재일한국인 사회는 이미 에스닉 집단이라는 존재감 자체가 와해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연구를 지속해 보아야 하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민자그룹 사회의 강한결합(strong ties)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이 성공적으로 연결되는 것(Light and Bonacich, 1988)에 상반되는 현상이다. 기존연구에서 주장되어 온 에스닉 기반의 강한결합(strong ties)이 성공적인 이민자기업가 정신을 창출해간다는 이론(Waldinger et al., 1990)에 반하는 가정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관점은 재일한국인 기업가를 에스닉 집단에서의 기업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제반기업가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연구초점 및 해석이 달라지게 한다. 상술한 바에 의하면, 재일한국인기업가에 관한 에스닉 차원에서의 설명은 부분적으로 거부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재일한국인을 한민족정체성에서 설명해 내려는 노력도 어찌 보면,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들의 이주경로가 비자발적인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일본사회 및 정부가 재일한국인들에게 귀화정책 등 편견과 차별을 지속해 온 만큼,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재일한국인기업가는 일본의 보편적 시장 또는 국제시장에 진입(김태영, 2005: 조사대상 57명 중에 86.1%가 비에스닉시장 지향)하였다. 이것은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이 보편적인 기업가로서 비즈니스성장 의지를 펼쳐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에스닉 기업가의 시장진입의지는 비즈니스성장을 이끌며(Altinay and Altinay, 2006), 거주국에서 에스닉 사회가 장기간 형성되거나 비즈니스역사가 오래될 경우(post-migration), 현지국의 에스닉집단의 시장니치를 벗어나서 제조업같은 거주국시장경제에 편입되어 가는 것에서 설명(Froschauer, 2001) 되듯이, 에스닉 차원에서 재일한국인기업가를 설명하는 것은 그들의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의 에스닉 네트워크가 미약하게 형성되는 점은 일본정부의 재일한국인귀화정책 등에 의한 정치적 의도가 없지 않겠으나, 비즈니스의 성장을 기대하는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의 보편적 의지가 작용하면서 에스닉 차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에

스닉 차원에서보다 보편적인 조건에서 한국과의 연결성에서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을 이해해야 한다. 즉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이 접하는 일본적 상황을 호의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즉 막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접근으로서의 한국과의 공식적인 비즈니스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우회 전략이 요구된다.

환언하면, 재일한국인기업가에게는 한국에서 조달하는 물리적 자원 및 한국의 비즈니스 구조가 상황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연결될 수 있고, 또한 통제 가능한 한국의 비즈니스맨들과의 친밀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들은 일본의 비즈니스세계에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유에서도 중요하지만, 재일한국인 기업가들이 일본 정부나 사회에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들이 2005년 일본현지 방문시 재일한국인기업가들과의 인터뷰과정에서 그들은 한류 등의 막연한 한국적배경이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가고자 하였던 점에서 다음의 가설을 정하였다.

H2: 재일한국인기업가와 한국의 비즈니스맨과의 친밀성이 일본의 재일한국인의 비즈니스관련 상황구조에 (+)의 영향을 미친다.

III. 실증분석

1) 샘플링 절차와 표본특성

연구대상 표본은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한 관동(關東)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자료는 일본 현지 방문(2005. 2.18-21)을 통해서 재일한국인거류민단, 재일한국인상공회의소, 재일한국인기업가를 만나서 인터뷰, 그리고 재일한국인 관련 주요기관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방문기간 동안 전량 회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편방식으로 4월말까지 받았다. 총 140부를 배포한 가운데에서 57부(40.7%)를 분석에 이용하였다<표 2참조>.

<표 2> 설문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 성별 | 남 | | 여 | |
|----|----------|----------|----------|---------|
| | | 51(89.5) | | 6(6.0) |
| 세대 | 1세대 | 2세대 | 3세대 | 4세대 |
| | 12(21.1) | 27(47.4) | 12(21.1) | 6(10.5) |
| 교육 | 고등학교 이하 | 학사학위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 19(33.3) | 31(54.4) | 7(12.3) | 0 |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남자가 대부분이며, 학력은 대체적으로 높다. 특징적인 현황이라면, 재일한국인의 주류세대인 2,3세대가 68.5%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일한국인 사회의 현재의 현상을 잘 반영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설검증기법

가설검증에 사용된 분석기법은 종속 및 독립변수의 타당성에 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종속변수는 국가의 상황구조를 일부 의미하는 변수들을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한 것이다. 이것은 2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시장진입, 일본 정부, 그리고 한국의 관련사건 등이 구조화되고 있었다. 독립변수로서 ①재일한국인사회가 일본사회에의 공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주국에서 에스닉집단의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판단’요인을 적용하였던 Singer(1997)의 변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구성하였으며, ② 한국과의 비즈니스맨과의 친밀성은 에스닉기업가정신의 글로벌화를 연구하였던 Iyer and Shapiro(1999)와 Kloosterman(2000)의 문맥의미를 적용하였다. 설문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수준을 묘사하도록 요청하였다(1=전혀그렇지않다 *significant negative effect*, 2=그렇지않다 *negative effect*, 3=보통 *no effect*, 4=그렇다 *positive effect*, 5=매우그렇다 *significant positive effect*).

3) 요인분석

재일한국인기업가 관련 일본의 상황구조, 재일한국인기업가의 일본사회에의 공헌 및 한국인과의 비즈니스관계 요인은 단일요인으로 묶였다<표 3 참조>.

<표 3> 요인분석결과

| | | Item(평균 표준편차) | F |
|-------------------------|--|--|------|
| | | 종속: 재일한국인기업가 관련 일본의 상황구조 (=7929) | |
| | | 일본의 제반환경은 우리기업이 일본시장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준다 (2.93, .821) | .759 |
| | | 일본정부는 우리기업에게 도움을 준다 (2.47, .826) | .877 |
| | | 한국과 관련된 주요사건이 우리기업에게 도움을 준다 (2.60, 1.050) | .891 |
| | | 독립: ①재일한국인기업가의 일본사회에의 공헌 및 ②한국인과의 비즈니스 관계 | |
| ① ($\alpha=.9172$) | | 재일한국인은 일본사회에서 문화적인 일부이다 (3.70, .680) | .862 |
| | | 재일한국인은 일본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인다 (3.54, .867) | .931 |
| | | 재일한국인은 일본사회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양성을 높인다 (3.63, .899) | .914 |
| | | 재일한국인은 일본사회의 음식다양성을 높인다 (3.75, .763) | .882 |
| | | 재일한국인은 일본사회의 국제화에 일조한다 (3.56, .802) | .896 |
| | | 재일한국인은 예술인및기업가를 배출하여 일본사회의 발전에 일조한다 (3.07, .942) | .604 |
| ② ($\alpha=.6914$) | | 나는 한국의 기업경영자와 친밀하다 (3.05, .854) | .844 |
| | | 나는 한국의 변호사와 친밀하다 (2.46, .867) | .720 |
| | | 나는 한국의 회계사와 친밀하다 (2.67, .787) | .796 |

평균적으로 볼 때, 일본사회에 대한 공헌은 높은 편이지만, 일본의 상황구조는 낮은 편이며, 한국인과의 비즈니스 관계 또한 낮게 나타난다. 비록 현재의 현상이 그렇지만, 향후에의 일본의 상황구조를 호전시킬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을 자극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가설검증 및 해석

재일한국인기업가 관련 일본의 상황구조의 개선에 미치는 요인을 가설 1로서 재일한국인기업가의 일본사회에의 공헌은 (-)으로, 가설 2로서 한국인과의 비즈니스 관계는 (+)로서 영향력으로 가설하였다. 가설 1은 $\beta = -.656$ (sig. .000), 가설 2는 $\beta = .663$ (sig. .000)으로서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R-Square는 .449[F=22.028(sig. .000)]로 상황구조에 두 요인은 비례한다 <표 3참조>.

<표 3> 회귀분석 결과(가설검증)

| | β | S.E | t | sig. | VIF |
|-------------------|-----------|------|--------|-------|-------|
| constant | -1.15E-17 | .100 | .000 | 1.000 | |
| 일본사회에의 공헌(H1) | -.656 | .115 | -5.682 | .000 | 1.305 |
| 한국인과의 비즈니스 관계(H2) | .663 | .115 | 5.750 | .000 | 1.305 |

F : 22.028(sig. .000), R-Square : .449, Durbin-Watson: 1.525

가설검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과의 비즈니스 관계성(네트워크)이 그들의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이다. 즉 한국인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상황구조를 (+)로 호전시킬 가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일한국인 기업가는 일본에서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제고를 위해서 이 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또한 재일한국인 사회가 일본사회에의 공헌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본 연구에서 나타났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한국과의 관계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일한국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본사회에의 공헌이 비즈니스 활동에의 부정적 영향’이 왜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일본사회에 대한 공헌과 비즈니스 활동을 별개의 차원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성공을 원치 않는다는 무의식적 표현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재일한국인 기업가들은 그들의 비즈니스 상황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한국인과의 네트워크 유지가 비즈니스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이 일본사회 및 정부에 문제점을 호소하고자 할 때,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한국의 비즈니스 관련인맥(관련 기업인, 변호사, 회계사 등)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상술한 의미에서, 비즈니스 관련 한국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국제 네트워크로 판단해 볼 때, 재일한국인 기업가들에게는 일본 내의 네트워크보다는 국제적인 조건에서의 네트워크 결합 전략이 상황구조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사회에서 재일한국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본의 상황구조를 호전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은 일본사회에의 공헌활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의 비즈니스관계성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일한국인은 일본사회에서 역사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받아왔다. 그것은 민족차원에서 재일한국인들을 사회경제적 약자 및 한계성을 결정짓는 조건으로 나타냈다. 그 결과 재일한국인들은 생존문제에서 심각한 위협을

겪어왔으며, 사회적인 기회(법적 및 정치적)를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일한국인의 취업기회에 대한 일본기업의 부당한 처우는 1970년대 ‘히타지재판’ 등을 통해서 일본사회구성원으로서 재일한국인들의 위치를 재고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재일한국인사회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문제보다는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발전적 방향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흥미롭게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치화는 에스닉 차원의 제반활동 등에서 탈피하는 경향을 발생시켰다. 이것은 본 연구자들의 인터뷰 및 실증분석에서 재일한국인기업가들이 에스닉 차원에서의 결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에서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재일한국인기업가들에게 딜레마를 낳게 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재일한국인 사회가 일본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재일한국인 비즈니스관련 상황구조를 호전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차라리 일본자체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비즈니스관계의 국제성(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한국인들과의 비즈니스 관계성)에서 상황구조를 개선시킬 여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해석해보건데, 일본사회 및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 사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또한 재일한국인기업가 관련 비즈니스 상황을 개선시켜 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구성원으로서 생각해왔던 재일한국인기업가들에게는 상황구조 개선에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대변하는 현상이다. 재일한국인사회가 일본사회의 다양성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헌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점은 연구자들로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내 상황이 그렇다면 재일한국인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그 점에서는 한국의 비즈니스관련 전문가들 및 국제적인 비즈니스 맨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본적 한계를 돌파하는 우회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参考文献】

- 김응렬(1990), “재일한국인의 사회적기회:사회적제약과 규범의식”, 재외한인연구 1(1), pp.35-58.
 김태영(2002), 『유교문화의 돌연변이 일본』, 보고서.

- _____ (2005), “재일한국인기업가의 네트워크특성과 기업가정신”, 한국일본문화학회 27, pp.317-342.
- 류시중(1974), “한국인의 도일상황과 일본에서의 생활실태”, 동양문화연구 1, pp.157-195.
- 민관식(1997), “재일한국인의 실태”, 일본연구 2, pp.203-234.
- 박관숙(1965),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법학논총 5(1), pp.162-165.
- 우갑경(1998), “국내한국인과 재일한국인간의 가치관, 성격 및 행동규범에 있어서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한일경상논집 15, pp.211-235.
- 이광규(1990), “국제인권규약과 재일한국인의 주체성문제”, 재외한인연구 1, pp.1-16.
- 이성근(1990), “재일한국인의 사회적지위개선에 관하여”, 일본연구 1, pp.349-354.
- 이유한(2001), “통계숫자로 본 재일한국인사회”, 세계문제연구소.
- 정삼영(1983), “재일한국인의 자체에 대한 민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 진주농전대 논문집 21, pp.405-409.
- 朝日新聞, “한국거류민단의 정주선언”, 1994/2/18.
- 정찬원(2005), “외국인 행정에 대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연구 11(3), pp.133-158.
- 한영혜(2006), 일본의 사회통합, 미래전략연구원(이슈와 대안).
- 在日韓國商工会議所(1997), 在日韓國人会社名鑑.
- 佐藤誠(1998)アントニー・J・フィールディング 編著, 『移動と定住-日欧比較の 国際労働移動』, 同文館.
- Altinay, L. and E. Altinay(2006), “Determinants of Ethnic Minority Entrepreneurial Growth in the Catering Sector”,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26(2), pp.203-221.
- Bates, T.(1994), “Social Resources Generated by Group Support Networks May Not Be Beneficial to Asian Immigrant-Owned Small Businesses”, *Social Forces* 72(3), pp.671-689.
- Chapman, David(2004), “The Third Way and Beyond: Zainichi Kore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Belong”, *Japanese Studies* 24(1), pp.29-44.
- Collins, J.(2003), “Cultural Diversity and Entrepreneurship: Policy Responses to Immigrant Entrepreneurs in Australia”,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5, pp.137-149.
- Dodd, S.D.(2002), “Metaphors and Meaning: A Grunded Culture Model of Us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 pp.519-535.
- Froschauer, K.(2001), “East Asian and European Entrepreneur Immigrants in British Columbia, Canada: Post-Migration Conduct and Pre-Migration

- Context”,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2), pp.225-240.
- Ibrahim, G. and V. Galt(2003), “Ethnic Business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Journal of Economic Issues*, XXXVII(4), pp.1107-1119.
- Iyer, G.R. and J.M. Shapiro(1999), “Ethnic: Entrepreneurial and Marketing System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Journal of Interactional Marketing*, 7(4), pp.83-110.
- Kloosterman, R.C.(2000), “Immigrant Entrepreneurship and the International Context: A Theoretical Exploration”, in *Immigrant Business: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Jan Rath(ed.), MacMillan Press Ltd.
- _____ (2003), “Creating Opportunities: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Openings for Immigrant Entrepreneurs in the Netherland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5, pp.167-181.
- Light, I. and E. Bonacich(1988),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yajima, Takashi(2004), “Xenophobia in Japan: Historical Context and New Challenges”, in *Studies on Human Rights: Struggle against Discrimination*, UNESCO. pp.87-110.
- Mitchell, R.B. and Keilbach, P.M(2001), “Situation Structure and Institutional Design: Reciprocity, Coercion, and Ex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4): 891-917.
- Mueller, S.L. and A.S. Thomas(1999), “Culture and Entrepreneurial Potential: A Nine Country Study of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 pp.51-75.
- Sequeira, J.M, and A.A. Rasheed(2004), “The Role of Social and Human Capital in the Start-up and Growth of Immigrant Businesses”, in *Ethnic Entrepreneurship: Structure and Process*, Curt H. Stiles and Craig S. Galbraith(eds.)(2004), ELSEVIER.
- Schmid, M(1987), “Collective Action and the Selection of Rules: Some Notes on the Evolutionary Paradigm in Social Theory”, In Schmid/Wuketits(eds.), *Evolutionary Theory in Social Science*, Dordrecht: Reidel. 79 -100.
- Singer, M.S.(1997), “SocioEconomic Impacts of New Asian Business Immigrants: A Study of the Expectations of European New Zeala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21(4), pp.447-457.
- Verheul, I.,S. Wennekers, D. Audretsch, and R. Thurik(2001), “An Eclectic Theory of Entrepreneurship”,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TI

2001-030/3.

Waldinger, R., H. Aldrich, R. Ward, and Associates(1990), *Ethnic Entrepreneurs: Immigrant Business in Industrial Societies*, Lonon, Sage.

K C I

要 旨

本稿は、日本社会における在日韓国人企業家のビジネスに関わる日本の状況構造を好転させる要因を分析したものである。

在日韓国人社会が日本社会へ貢献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において在日韓国人のビジネス関連の状況構造を好転させるのは難しいと判断される。むしろ、日本社会自体での問題点を解決するより、公式的なビジネス関係の国際性（本研究では専門的な韓国人とのビジネス関係性）においてこそ状況構造を改善させる余地が存在するであろう。

このような日本社会の状況の下で在日韓国人のビジネスの成長には、韓国のビジネス関連専門家及び国際的なビジネスマンとのネットワークを通して日本の限界を突破する戦略が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在日韓国人企業家 帰化 対称的外部性 非対称的外部性 状況構造 政策的差別
エスニックビジネス

투 고：2006. 5. 31
1차 심사：2006. 6. 10
2차 심사：2006. 7. 1

· 김태영(Kim, TaeYoung)

住 所：(210-702)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123 번지 강릉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電 話：033-640-2157

e-mail：taeyoung@kangnung.ac.kr

· 박재수(Park, JaeSue)

住 所：(305-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 번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마케팅실

電 話：042-869-0693

e-mail：jaesue166@kisti.re.kr